

투자·채용 줄고 M&A 스톱... 선장 잃은 롯데 “경영할수 있게”

5일 선고 앞두고 노심초사

면세점 관련 부정청탁·뇌물 혐의
檢, 1심 선고량의 5배 가량 구형
상반기 투자액 20%·채용 80% ↓
中 롯데월드 건설 2년째 중단 등
롯데, 총수 공백에 경영 ‘빨간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진영 기자 son@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1심 선고형량의 5배에 가까운 구형을 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8개월째 총수 공백으로 그룹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 투명화와 한일 롯데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작업들을 담보상태며, 투자와 채용에서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일 법정에 따르면 5일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동빈 회장과

점 특허권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롯데그룹은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 투자를 비롯해 채용면에서도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롯데 그룹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약 88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감소했다. 아울러 매년 1만2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공채는 올해는 2300명 정도만 뽑아 약 80% 줄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에서 진행하던 10조원에 달하는 10여건의 투자나 인수합병 작업도 울스름했다.

롯데가 중국 선양에 추진 중인 롯데월드 건설공사가 2년째 중단됐다. 지난 2016년 11월 공사를 중단 이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롯데가 진행 중인 ‘청두 프로젝트’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롯데가 중국에서 침체 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지만,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신 회장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롯데그룹으로서는 신 회장의 공백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신 회장의 공백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노출된 순환·상호출자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신 회장밖에 없다는 게 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확립했다. 국내에서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국내 롯데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다. 이 같은 신 회장의 구상은 신 회장이 구속되

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애플 창업자 잡스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다시 사회로 나가 기업가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70억원을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의 항소심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신 회장의 당시 사정 및 상황 등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5일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이 태국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현지 택배 1위를 목표로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 태국 현지 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택배를 전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동남아 ‘택배 한류’ 시동

태국서 택배사업 비전 선포식 행사
내년 5월 7만1900㎡ 물류센터 구축

CJ대한통운이 태국 현지에서 ‘2020년 택배 1위’ 달성을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태국을 교두보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택배 한류’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본사 및 태국 현지 임직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택배사업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택배사업 1위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차동호 택배부장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매년 두자릿수 성장이 기대되는 이커머스 시장과 젊고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들로 인해 그동안 태국 택배시장을 주목해 왔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태국 1위의 택배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우선적으로 내년 5월까지 태국 방나 지역에 7만1900㎡(약 2만2000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CDC)를 구축할 계획이다. CDC가 완성되면 자동화 분류장치인 휠소터를 통해 현재의 10배인 하루 최대 40만 상자의 택배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S, 전자서명 해킹방지 암호기술 확보

삼성SDS는 세계 최초로 전자서명에 대한 부채널공격을 차단하는 해킹방지 암호기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부채널공격이란 IC칩이 내장된 신용 카드와 전자여권, 자동차 스마트 키 같은 IoT 기기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 소모량, 전자기 신호량 등을 분석해 전자서명 암호키를 빼내는 해킹기법이다.

전자서명 암호키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IC칩 등에 입력된 개인 고유의 비밀 정보값으로, 해커가 부채널 공격으로 탈취한 신용카드 전자서명 암호키를 새로

운 IC칩에 입력하면 카드 복제가 가능해진다.

IC칩 보편화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커넥티드 카 같은 IoT 기기의 확산에 따라 부채널공격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암호기술 확보는 난제로 남아있었다.

삼성SDS의 부채널공격차단암호기술은 IC칩에 들어있는 전자서명 암호키를 삼성SDS 자체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임의의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채널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9월 수출액 506억弗... 일평균 ‘사상최대’

산업부, 일평균 작년보다 10.6% ↑
사상첫 5개월연속 500억달러 돌파

올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면서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나홀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4일 줄어 최소 80억 달러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

로 사상 최대다.

1~9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450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월 일평균 수출도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수입은 408억4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다. 조업일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축소와 작년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2016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줄었다.

무역흑자는 97억5천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28.3%), 석유제품(13.5%), 컴퓨터(5.7%) 3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 완화로 단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고사양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24억3000만 달러로 9월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단가 호조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컴퓨터는 교체수요 확대와 기업용 시장 성장으로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편, 이날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직접한 김현중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9월 수출의 감소 원인인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12월에도 수출이 5% 내외의 성장하면서 월 50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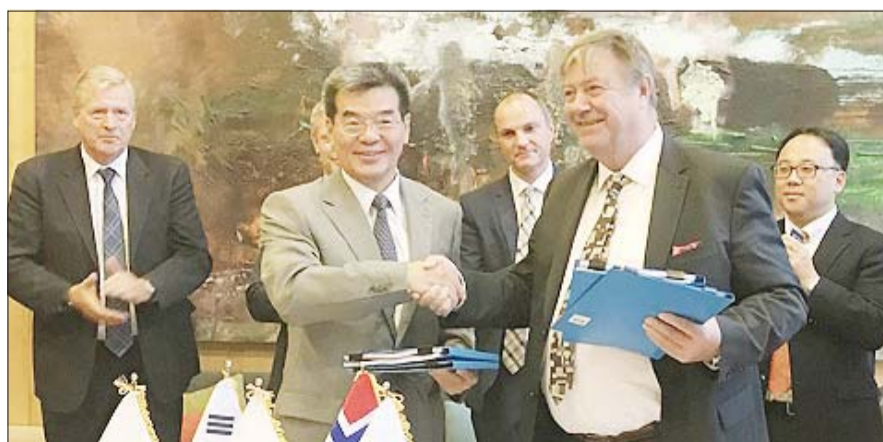
현대중, 노르웨에서 2.1억弗 수주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
2020년6월부터 순차적 인도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KNOT사로부터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을 총 2억 10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내년 상반기 울산 본사에서 건조에 들어가 2020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셔틀탱커는 길이 279m, 너비 48m, 높이 23.6m의 제원을 갖추고 선주가 원할 때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건조된다. 또 셔틀탱커의 주요 장치인 스텔러스터(해상에서 석유를 선적하는 동안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카고 펌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류배전판(DC GRID)을 적용하게 된다.

KNOT 측은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에 셔틀탱커 첫 호선을 맡긴 이후 지금까지 총 9척의 셔틀탱커를 발주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앞줄 왼쪽)과 트리그베 세그렌 KNOT 사장(앞줄 오른쪽)이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이번 수주 계약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3분기 기준 수주 실적은 총 129척,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사상 부문 목표인 132억달러의

79%에 해당한다.

선종별로는 LNG(액화천연가스)선 16척, LPG(액화석유가스)선 12척, 에탄올반선 3척, 컨테이너선 47척, 탱커 47척 등을 수주했다. /정연우 기자 yw964@